



취미클럽탐방 - 재능인재 축구부



2000년 5월 7일 프랑스 파리 근교의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벌어진 프랑스컵 결승. 우리나라의 FA컵 대회에 해당하는 축구 대회의 결승전은 프랑스 리그 명문 클럽인 FC 낭트와 칼레의 대결로 벌어졌다.

FC 낭트는 2001년 프랑스 리그 우승을 비롯해 리그 우승 8회에 빛나는 프랑스의 명문 클럽. 하지만 그에 맞서는 칼레는 2000년 프랑스 컵에 출전하기 전까지 프랑스 국민 어느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외딴 항구 도시의 아마추어 클럽 팀이었다.

결국 2대1로 역전패를 당했지만 경기장에 모인 8만 명의 관중들은 포기할 줄 모르는 불굴의 투지를 보여준 항구 도시의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우승컵을 차지한 낭트에 비교해 결코 뒤지지 않는 박수를 보내줬다.

면접 시험 기준 '공 좀 다루십니까'

아마추어팀 선수들이 프로축구팀과 자웅을 겨룰수 있는 기회는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11월중에 치러지는 FA컵이 그것이다.

한창 물이 오른 신병호의 솜을 막아내고 진공청소기 김남일과 마스크 맨 김태영을 제치고 전남의 골네트를 흔들기 위해 인쇄기를 돌리고, 마우스를 움직이는 이들이 있다. 97년 회사 동호회 수준으로 출발한 재능인재의 축구팀 선수들이 바로 그들이다.

인쇄기 돌리고, 매킨토시 다루는 인쇄업체 축구선수들이라고 무시해선 큰일이다. 이들 중에는 한일월드컵 이탈리아 전의 골든 골의 주인공 안정환 선수의 솜을 곧잘 막아냈던 문지기가 있으며, 현역 프로축구 선수들과

이운재가 지켜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의 목표는 FA컵 우승”

자용을 거렸던 선수들이 좋아하는 축구를 계속하기 위해 인 쇄기를 돌리고, 품질 검사에 매달리고, 매킨토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축구를 위해 실업팀에 버금가는 시간을 투자하는 현대 미 포 조선, 삼익약기 등에 번번이 달미를 잡혀 FA 컵 진출이 무산되긴 했지만 재능인쇄 선수들의 실력은 이들에 비해 크 게 떨어지지 않는다.

97년 동호회 수준의 축구팀이 이처럼 성장한 배경에는 실 업팀 수준은 아니지만 회사의 축구팀을 위해 회사의 남다른 배려가 있었다. 99년부터 회사 축구팀을 육성하기 위해 특 별한 기술이 필요로 하지 않는 부서의 경우 면접 시험 기준 에 '축구를 잘하는지' 여부를 묻기 시작했다. 또한 실업팀에 입단할 실력은 되지 않지만 축구에 대한 열정을 저버리지 않 은 이들을 대상으로 고액 연봉대신 평생 직장을 무기로 스카 우트에 나섰다.

축구팀 40명중 99년 이후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 방침에 따라 회사에 입사한 이른바 '축구 특기생' 들은 10여명이 넘 고 있으며, 스타팅 멤버로 나선 이들은 대부분 이때 입사한 이 들이다. 대표적인 골케터인 공재섭(28 매킨토시)씨와 최 근진(28 매엽 인쇄기)씨의 경우 축구 판에서 한가락하던 이 들로, 공재섭씨의 경우 수원삼성 이기형 선수의 모교인 인천 정명고를 거쳐 안동대에서 선수 생활을 했고, 최근진씨의 경 우 남강고를 거쳐 중앙대학교 축구팀에서 활약한 바 있는 실 력파들이다.

또한 못 말리는 축구광 이현우 관리이사의 도움으로 축구 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회사에서는 볼링, 산악회 등 동호회 별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축구팀은 동호회 지원금 외에 별도로 훈련 보조금을 받고 있다. 축구팀 유니폼도 회사에서 지원해 준 것이다.

또한 2주에 한번 꼴로 행하는 연습경기 외에도 중요한 시 합을 앞두고 있을 땐 근무시간에 팀원들을 근무처가 아닌 축 구장으로 투입시키고 있는데 지난 9월에 열린 '제4회 FILA 컵 전국직장인축구대회' 의 경우 회사의 배려로 2주 동안 오 후 시간을 인쇄가 아닌 축구에 매달리기도 했다.

회사의 적극적인 선수유치(?)로 직장인 클럽의 경우 재능 인쇄를 함부로 대할 팀이 없어졌다.

99년도 동호회 수준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 첫해엔 구미 에서 열린 전국공단이사장배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데 이어, 2000년 여천에서 벌어진 같은 대회에서 3위에 입상하

는 등 발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능인 쇄 축구팀은 승리에 굶주려 있다.

축구 특기가 입사에 반영될 때부터 그들의 목표는 조그마 한 대회 우승이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재능인쇄 축구팀의 가장 현실적인 목표는 FA컵 진출이다. 아마추어 축구팀이 아마와 실업 프로축구팀이 총 충돌해 그 야말로 국내 최정상을 겨루는 FA컵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30대 이상이 겨루는 직장인 축 구대회인 'FILA컵 전국직장인축구대회' 결승전에 진출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나이 제한이 없는 푸티리그에서 우승 을 차지하는 것이다.

재능인쇄가 넘어본 선은 두 대회 본선 진출까지이다. 2000년 푸티리그 서울지역 1위를 차지해 본선리그에 진출 했으나 내년 실업팀 창단을 준비하고 있는 삼익약기와의 경 기에서 선취점을 지키지 못해 승부차기 끝에 패하고 말았다.

올해에는 FILA컵 전국직장인축구대회 서울지역 1위를 차 지해 역시 본선 리그에 참여했으나 첫 경기에서 만난 강호 현대미포조선의 벽을 넘지 못해 3대1로 분패를 삼켰다.

꿈★은 이루어진다

FILA컵 전국직장인축구대회의 선전으로 인해 재능인쇄 축구팀은 두 가지 변화를 겪었다. 내년부터 올해의 화랑부가 아닌 한 단계 상승한 좀더 막강한 팀들이 버티고 있는 청룡 부 소속으로 출전하게 됐으며, 직원들 관심 또한 더 한층 높 아졌다.

청룡부로 출전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상대할 팀들은 기존 화랑부와는 또 다른 팀들이다. 좀더 막강한 상대와 겨루게 됨으로서 FA컵 진출은 올해보다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하지만 재능인쇄 축구팀은 오히려 새롭게 만날 상대팀에 대한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그만 그만한 상대들과 겨루기엔 그들의 실력이 부쩍 성장했음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간절할 때 꿈은 먼 곳에 있지 않고, 꿈꾸는 자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다.

칼레 팀의 기적같은 선전과 선제골을 넣은 슈퍼마켓 종업 원 제롬 듀티트르의 기쁨의 내면에는 꿈을 성취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음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용우 기자 <photoyw@print.or.kr>